

2015년 7월 2일

투자전략 Daily

• 스몰캡 투자전략

청개구리보다 추세에 순응하는 현명한 바보

• 이머징마켓 동향

지표, 차익 등으로 주요 이머징 혼조세

• 전일 시장 특징주 및 테마

• KIS 투자유망종목

단기 유망종목: 에스원 외 5개 종목

중장기 유망종목: KCC 외 5개 종목

• 산업/기업분석

손해보험, 매일유업, 유테크, 한국가스공사, 현대제철

• 국내외 자금동향 및 대차거래

• 증시 캘린더

자산배분전략 | 노근환 ☎ 3276-6226

투 자 전 략 | 박소연 ☎ 3276-6176

시 황 분 석 | 김대준 ☎ 3276-6247

글로벌전략 | 박중제 ☎ 3276-6560

계 량 분 석 | 안 혁 ☎ 3276-6272

파 생 / ETF | 강승철 ☎ 3276-6181

스몰캡전략 | 정훈석 ☎ 3276-6232

이머징마켓 | 윤항진 ☎ 3276-6280

채 권 분 석 | 이정범 ☎ 3276-6191

크 레 디 트 | 김기명 ☎ 3276-6206

R E I T s | 이수정 ☎ 3276-6252

주요 증시 지표 및 주체별 거래 동향

◆ 주요 증시 지표

구 분		6/24(수)	6/25(목)	6/26(금)	6/29(월)	6/30(화)	7/1(수)	
유가증권	종합주가지수	2,085.53	2,085.06	2,090.26	2,060.49	2,074.20	2,097.89	
	등락폭	4.33	-0.47	5.20	-29.77	13.71	23.69	
	등락종목	상승(상한)	532(16)	404(3)	290(6)	133(7)	555(3)	605(10)
		하락(하한)	290(0)	406(2)	518(0)	702(0)	266(0)	221(0)
	ADR	98.37	97.32	94.21	89.64	97.28	104.17	
	이격도	10 일	101.61	101.44	101.51	99.97	100.42	101.26
		20 일	100.95	100.99	101.31	99.96	100.64	101.70
	투자심리	70	60	70	70	80	80	
	거래량 (백만 주)	401	576	493	504	392	468	
	거래대금 (십억 원)	5,340	5,936	6,345	6,207	5,654	5,805	
코스닥	코스닥지수	746.62	753.66	750.50	733.04	742.27	760.67	
	등락폭	6.80	7.04	-3.16	-17.46	9.23	18.40	
	등락종목	상승(상한)	532(2)	404(1)	290(6)	133(4)	555(4)	750(6)
		하락(하한)	290(0)	406(0)	518(0)	702(0)	266(0)	269(0)
	ADR	99.18	97.84	95.02	89.44	96.89	103.93	
	이격도	10 일	103.18	103.62	102.65	99.89	100.66	102.57
		20 일	104.11	104.76	104.04	101.50	102.51	104.59
	투자심리	70	60	70	70	80	80	
	거래량 (백만 주)	507	540	606	477	463	552	
	거래대금 (십억 원)	4,045	4,361	4,932	4,093	4,154	4,358	

◆ 주체별 순매수 동향

(단위: 십억원)

구 분		개 인	외국인	기관계 (금융투자)	(보험)	(투신)	(사모)	(은행) (연기금 등)	기 타		
유가증권	매수	3,460.7	1,207.4	1,121.4	247.9	133.1	241.2	116.1	30.0	353.19	48.7
	매도	3,535.6	1,193.8	1,055.0	209.0	147.4	264.8	66.0	29.4	338.3	53.8
	순매수	-74.9	13.6	66.4	38.9	-14.3	-23.7	50.1	0.6	14.8	-5.1
	7월 누계	-74.9	13.6	66.4	38.9	-14.3	-23.7	50.1	0.6	14.8	-5.1
	15년 누계	208.8	8,310.5	-8,785.2	-5,309.8	-1,122.8	-5,751.1	-508.1	-567.9	4,474.5	266.0
코스닥	매수	3,853.1	240.3	272.1	59.8	36.8	78.4	28.0	6.9	62.1	28.7
	매도	3,927.6	250.1	168.0	37.8	22.8	34.9	16.3	4.9	51.3	48.6
	순매수	-74.4	-9.8	104.1	22.1	13.9	43.5	11.8	2.0	10.8	-19.9
	7월 누계	-74.4	-9.8	104.1	22.1	13.9	43.5	11.8	2.0	10.8	-19.9
	15년 누계	647.2	-313.3	804.6	-168.0	314.0	456.3	30.3	-139.1	311.0	-1,138.5

청개구리보다 추세에 순응하는 현명한 바보

2015년 Target KOSPI	2,300pt
12MF PER	10.00배
12MF PBR	0.95배
Yield Gap	8.2%P

- ▶ 소형주에 이은 중형주지수의 역사적 고점 돌파, 현명한 바보가 되는 것이 합리적
- ▶ 급조정 여건이 성숙된 상황이나 경험적 측면에서 볼 때 조정을 감내하는 보유전략이 유리
- ▶ 역발상의 청개구리 전략보다는 추세에 순응하는 현명한 바보 전략이 보다 바람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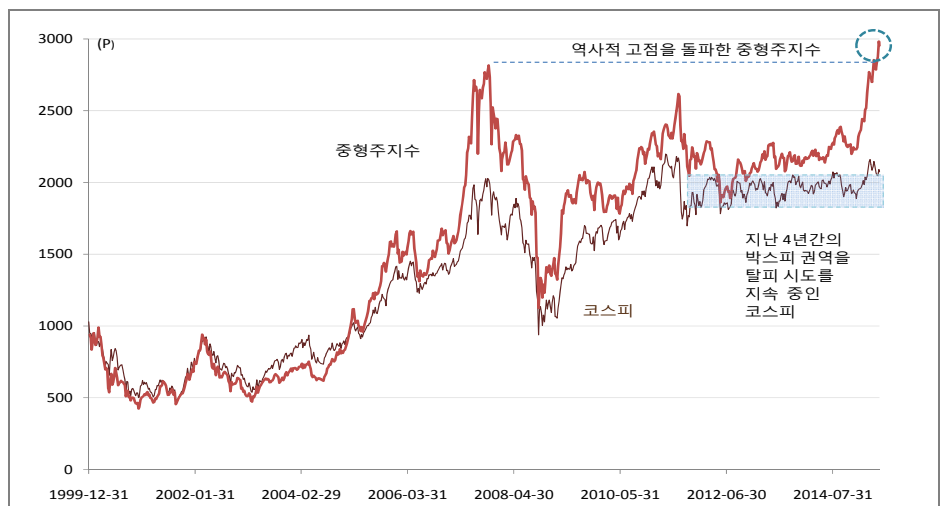
6월말부터
전인미답의 국면에
들어선 중형주지수

■ 개별 종목장세의 확장, 중형주지수는 역사적 고점 돌파

메르스 사태에 따른 조정세에 벗어나 반등세를 보이던 코스피가 그렉시트 논란과 중국 버블 우려에 또 다시 발목을 잡히듯 했으나, 수급선 돌파 시도에 나서는 모양새다. 코스피는 지난 4년간의 박스피 상단의 지지력 확인과정에서 벗어나지 못한 상태이지만, 유가증권 소형주지수에 이어 중형주지수는 장중에 3,000P선을 돌파하는 등 2007년 역사적 고점의 저항을 무력화시키고 전인미답의 행보에 나서는 모양새다.

주지하다시피 주가 재평가의 기본 동력이라고 할 수 있는 금리가 역사적 최저 수준이라는 점에서 주요 지수들의 역사적 고점 돌파는 당연한 귀결로 해석될 수 있다. 또한 제반 악재 돌출에도 불구하고, 코스닥 시총 사상 최고치 경신과 소형주지수의 역사적 최고가 행진에 이은 중형주지수의 역사적 최고치 경신은 사후적으로 코스피의 역사적 최고치 경신의 강력한 예고지표였다고 해석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개별 종목장세가 중형주로의 확장세를 감안할 때 과열논란과 관련해서 현명한 바보가 되는 것이 합리적인 상황으로 여겨진다.

[그림 1] 역사적 최고가를 돌파한 중형주지수



자료: Wisefn, 한국투자증권

하지만 2005년 초강세장 이후 10년 만에 출현한 전형적인 개별 종목장세가 2년째 지속됨에 따라 급조정 우려와 함께 추세에 대한 논란도 만만치 않게 제기되고 있다는 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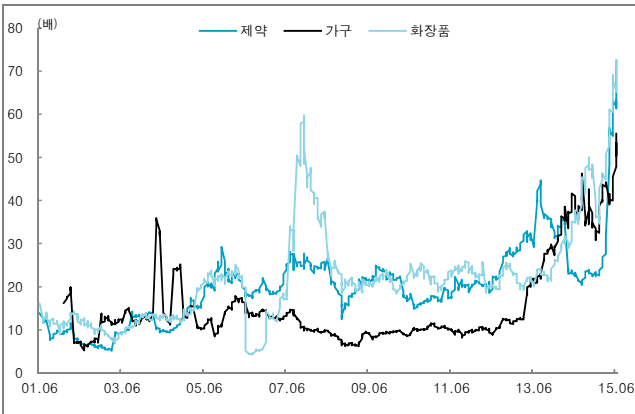
실도 무시할 수 없는 현실이다. 조정국면으로의 전환은 시기의 문제일 수 밖에 없다는 논거들은 다음과 같은 사실에 기초하고 있다.

■ 밸류에이션, 거시지표 등에 비추어 볼 때 증소형주의 조정 여건은 성숙

종목장세를 주도하고 있는 제약, 화장품, 가구주들의 밸류에이션은 머니게임 영역으로 진입한 상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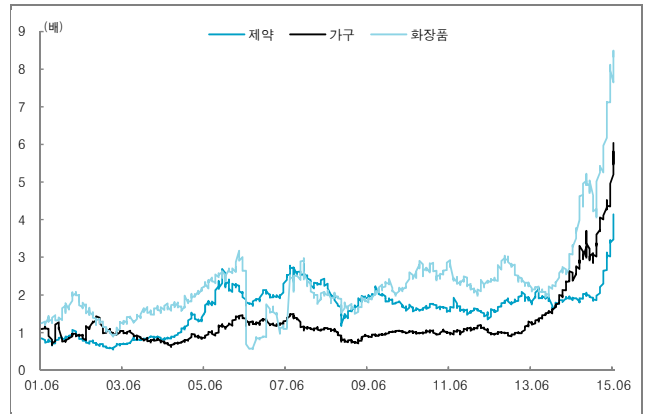
첫째, 그 동안의 투자 경험 상 현재 종목장세 주도주들의 밸류에이션 수준이 연속성을 가지는 어렵다. 현재 개별 종목장세를 주도하고 있는 제약, 화장품, 가구주들의 Trailing Twelve Month PER이 각각 72배, 71배, 55배를 넘어섰으며, 예상이익 기준 PER도 40배를 넘나들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제약, 화장품, 가구주들의 Trailing Twelve Month PBR은 각각 4배, 8배, 6배를 넘어서 전혀 없이 높아진 상태다. 현 시점에서의 제약, 화장품, 가구주들에 대한 베팅은 머니게임적 성격이 강하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는 없어 보인다.

[그림 1] 제약/화장품/가구의 PER 추이



자료: Quantwise, 한국투자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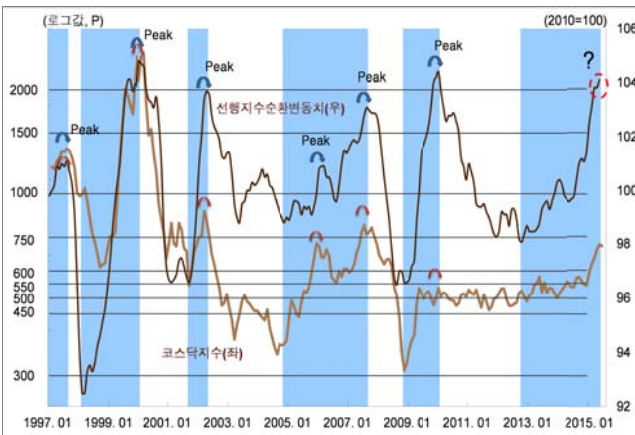
[그림 2] 제약/화장품/가구의 PBR 추이



자료: Quantwise, 한국투자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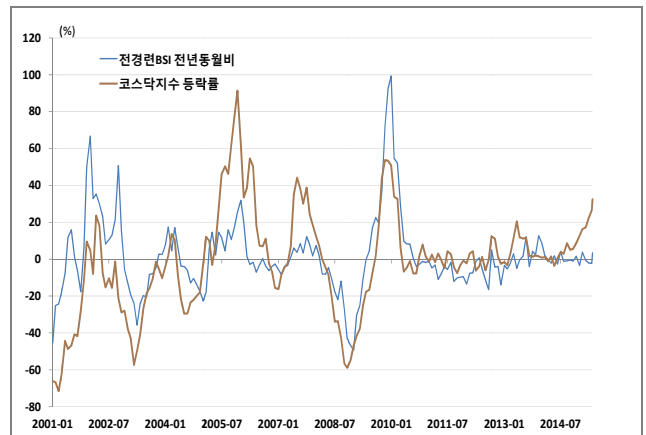
둘째, 개별 종목들의 주가 흐름과 경기지표간의 괴리는 벌어질 대로 벌어진 상태다. 코스닥지수의 고점과 일치성을 보여왔던 경기선행지수가 그 동안의 순환사이클에 비추어 보면 상반기에 고점을 형성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그림 3] 선행지수 순환변동치와 코스닥지수 추이



자료: Quantwise, 한국투자증권

[그림 4] 전경련 BSI 등락률과 코스닥지수 등락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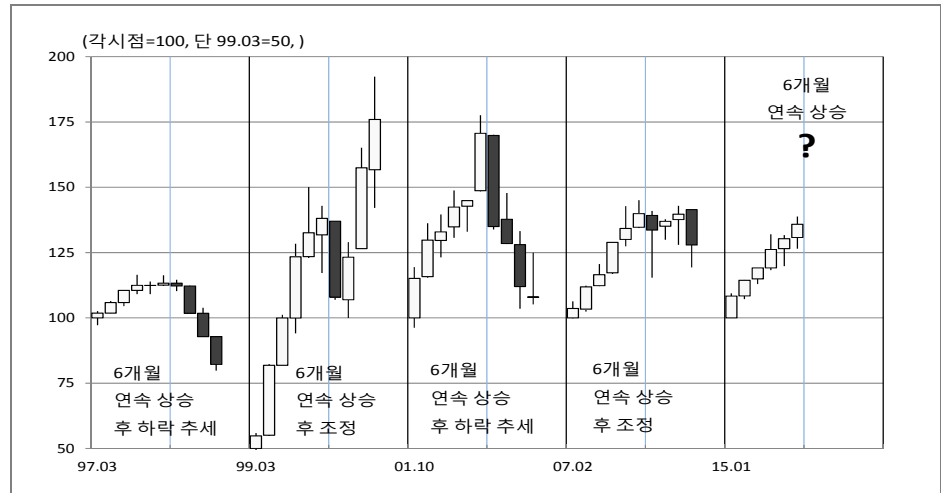
자료: Quantwise, 한국투자증권

또한 동행적 패턴을 보여왔던 체감경기지수와 코스닥지수간의 간극도 전혀 없이 커진 상태다. 경기지표나 체감경기와 스톱캡 주가간의 경험적 관계에 비추어 보면 거시지표

가 개선되던지 아니면 개별 종목들의 조정이 이루어져야 할 시점이 임박한 것으로 해석된다.

셋째, 코스닥지수의 기술적 흐름이 경험적 한계치에 도달한 상태다. 96년 이후 코스닥지수의 월봉 흐름을 보면, 연속 상승 개월의 한계치가 6개월이었다. 코스닥지수가 6월 연속 상승한 이후에는 예외 없이 조정국면이 뒤따랐었다. 소형주지수의 경우에도 6개월 연속 부담을 쉽게 떨칠 수는 없다. 역사는 동일하게 반복될 수는 없겠지만 투자심리적 측면에서는 참고할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다. 계기만 주어진다면 투자자들의 차익 실현 욕구는 일거에 표출되며 시장은 반전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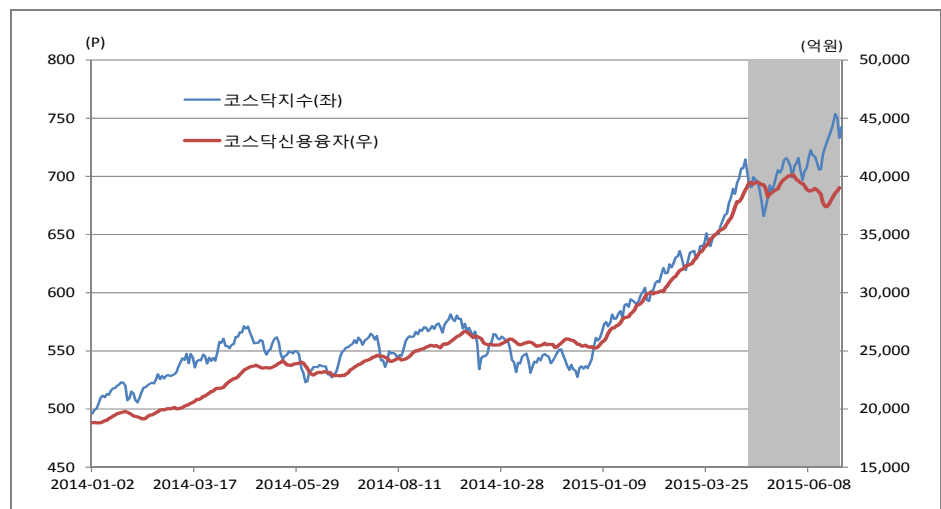
[그림 5] 코스닥 6개월 연속 상승 시기의 코스닥 월봉 추이



자료: Wisefn, 한국투자증권

넷째, 코스닥시장에 대한 투자심리를 반영하고 있는 있는 코스닥 신용융자잔고가 정체를 보이고 있다.

[그림 6] 코스닥 6개월 연속 상승 시기의 코스닥 월봉 추이



자료: Wisefn, 한국투자증권

금년 초 1.5조원이던 코스닥 신용융자잔고가 5월말 4.0조원까지 늘어나며 ‘신용융자 증가 → 주가 상승 → 신용융자 증가 → …’의 선순환 구조를 형성, 코스닥시장의 강세를 이끌어왔다. 신용매매가 손실을 보지 않는 한 신용융자의 선순환 구조는 유지될

수 있지만, 주가가 일정 수준 이상 조정을 받을 경우 신용거래의 순기능이 역기능으로 전환될 수 있다는 점에서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나 신용융자잔고가 4월 중순 이후 정체를 보이고 있다는 사실은 코스닥시장에 대한 개인 투자자들의 피로도가 상당히 높아져 있음을 방증한다.

■ 고점과 저점은 예측의 영역이 아니라 대응의 영역

구조적 요인에 기반한
역사적 고점 돌파는
비가역적인
경향성을 내재

이처럼 조정에 대한 부담을 떨치기가 어느 때보다도 어려운 시기라는 점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점에서 적극적 판단을 유보하고 단기 조정을 감내하는 전략을 고수하는 것이 좋아 보인다.

우선, 주가가 역사적 고점을 돌파할 경우 상당기간에 걸쳐 비가역적인 상승세를 보이는 경향이 강하다. 역사적 고점 돌파는 구조적 요인에 기반한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현 시점에서 소형주지수와 중형주지수의 상승폭이나 상승기간을 예단할 경우 오히려 상당한 기회비용을 지불할 공산이 커 보인다.

둘째, 조정 시점에 대한 선제적 판단은 불가능하다. 경험적으로 추세전환 패턴이라고 할 수 있는 M자형 혹은 삼중천장 패턴, 섬뿔 형성 여부, 직전 고점의 저항 등이 확인해지기 전까지는 추세에 순응하는 전략을 견지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는 것은 확고한 경험칙이다. 개별종목들이 전례 없는 과열을 보이고 있기는 하나, 상해종합주가지수가 2천포인트에서 5천포인트로의 트리플 점프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합리성을 앞세우는 것보다 추세를 우선시하는 전략이 좋아 보인다.

셋째, 주가는 우리의 벽을 타고 오르기 마련이다. 증시 격언 중 가장 많이 인용되는 격언 중의 하나가 “강세장은 비관 속에서 태어나 회의 속에서 자라고 낙관 속에서 성숙하여 행복감 속에서 사라져 간다.”는 것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낙관론에 빠져 주식투자에 나서는 시기가 도래하지 않았다면 상승 여정은 계속될 수 있다는 것이 오랜 경험칙이다. 더구나 전례 없는 스몰캡 장세가 연출되고 있다고는 하나 증시 전반에 걸친 과열 조짐은 없다. 기술적 측면에서 보면 여전히 나보다 비싼 가격을 지불할 대기자들이 존재하는 시점에서는 합리적 잣대를 들이댈 필요가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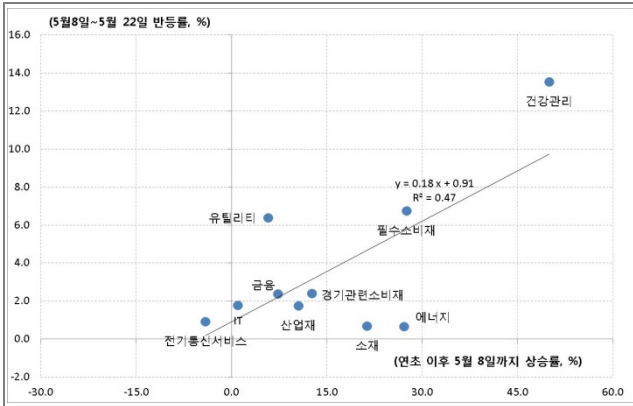
■ 성장주 위주의 기존 주도주에 대한 집중과 선택 전략 고수

역발상 전략보다
기존 주도주
집중전략이
상대적으로 유리

엔저 등으로 수출이 6개월 연속 감소세를 지속되는 가운데 성장률 전망치의 하향 조정이 잇따르고 있다. 중소형주 상대적 강세국면의 배경이 되고 있는 이익 정체국면이 메르스 사태에 이은 그렉시트 논란으로 연장될 가능성이 커진 만큼 개별 종목위주의 스토리 장세의 연장 여지도 커졌다. 따라서 과열 과속으로 인한 일정부분의 조정을 감수하더라도 개별 종목에 대한 추세 순응전략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판단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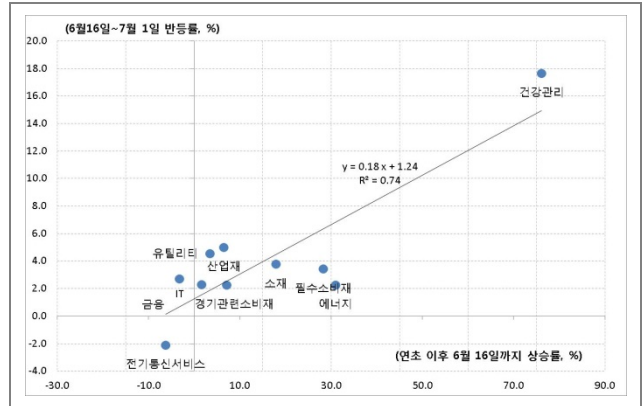
작년 하반기 이후 성장주 일변도의 개별 종목장세에 별다른 호트러짐이 없다는 점과 6월 16일 이후 반등국면에서 주도주들의 시장 장악력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성장주들의 외연 확장 가능성을 염두에 둔 접근보다는 기존 주도주에 집중하는 전략이 바람직해 보인다. 내츄럴엔도텍 사태로 유발되었던 급락세 이후의 반등국면에서도 기존 주도주들 위주의 반등세가 연출되었다는 사실도 상기해 볼 필요가 있다. 아직 개별 종목장세의 피날레를 예단할 필요가 없는 시점이라는 점에서 가격 메리트 혹은 밸류에이션 매력에 기반한 역발상의 청개구리 전략보다는 추세에 순응하는 현명한 바보 전략이 실효성이 훨씬 더 높아 보인다.

[그림 7] 5월중 빠른 반등세를 보였던 주도업종



주) 업종 등락률은 WiseFn의 섹터분류 기준으로 산출
 자료: Quantwise, 한국투자증권

[그림 8] 빠른 반등세를 보이고 있는 주도업종



주) 업종 등락률은 WiseFn의 섹터분류 기준으로 산출
 자료: Quantwise, 한국투자증권

따라서 추세에 순응한 모멘텀 플레이 측면에서 현재 시장 주도주라고 할 수 있는 52주 신고가 종목들중 실적 개선세와 상대적 밸류에이션 매력을 내재한 종목들에 접근은 무리가 없다는 판단이다. 참고로 금주에 52주 신고가를 경신한 120여개 종목들중 금년도 순이익이 100% 이상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는 종목들 중 예상 PER이 15배 이하인 종목들을 선별하였다.

<표 1> 금주 52주 신고가 종목 중 성장성 및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상대적 투자 매력도가 높은 종목

(단위: %, 배)

	직전 4분기 누적 실적증감률			TTM기준		2015년 예상 실적 증감률			2015F		비고
	매출액	영업이익	순이익	P/E	P/B	매출액	영업이익	순이익	P/E	P/B	
한화	(3.1)	(38.9)	적자전환	N/A	0.3	2.7	104.9	410.4	7.8	0.3	삼성테크윈을 자회사로 편입하면서 순자산가치 증가 기대
블루콤	88.9	54.4	60.1	11.4	2.5	31.3	30.6	396.1	8.5	2.1	웨어러블 기기로 사업확장 가능성
다우기술	13.8	129.1	164.7	9.6	1.0	12.7	64.9	152.9	8.5	0.9	키움증권의 인터넷은행 설립 가능성에 따른 수혜 예상
코텍	0.7	(55.6)	(41.9)	25.2	1.2	56.9	329.7	564.1	10.0	1.1	거래처 매출 회복으로 실적 개선 전망
CJ	3.7	40.3	76.0	12.8	0.9	8.2	31.0	206.8	10.6	0.9	계열사 실적개선 영향에 신고가
세아베스틸	1.5	37.0	50.2	10.0	0.9	(3.7)	22.7	147.9	10.6	1.0	2분기 실적 및 자회사의 견조한 실적 예상
성신양회	4.5	1.1	110.4	24.6	1.3	5.6	47.3	흑자전환	11.3	1.1	건축시장 활성화로 시멘트 출하량 증가에 따른 수혜
화성산업	24.9	73.4	62.2	14.2	1.3	17.9	24.9	419.6	12.2	1.2	수익성 높은 자체사업 확대로 향후 고성장할 것이라 전망
매리츠화재	7.4	(34.4)	(37.1)	17.2	1.2	(14.4)	35.4	627.0	12.7	1.2	올해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할 것이라 전망에 강세
코오롱플라스틱	8.4	17,058.1	흑자전환	35.3	2.4	9.0	232.7	1,276.9	13.6	2.1	수요 회복과 고수익 시장 중심 매출처 개편 기대
한국토지신탁	(17.3)	30.6	27.2	17.0	2.4	5.4	11.4	325.2	15.2	2.1	디벨로퍼로 헤게모니 변화에 따른 수혜

주1: P/E, P/B는 7월 1일 종가기준.

주2: 직전 4분기 누적 실적(TTM)은 2014년2분기~2015년1분기의 실적임

자료: WiseFn, 한국투자증권

- 본 자료는 고객의 증권투자를 돕기 위하여 작성된 당사의 저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게 있으며, 당사의 동의 없이 어떤 형태로든 복제, 배포, 전송, 변형할 수 없습니다.
- 본 자료는 당사 리서치센터에서 수집한 자료 및 정보를 기초로 작성된 것이나 당사가 그 자료 및 정보의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는 없으므로 당사는 본 자료로서 고객의 투자 결정에 대한 어떠한 보장도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최종적 투자 결정은 고객의 판단에 기초한 것이며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 본 자료에 제시된 종목들은 리서치센터에서 수집한 자료 및 정보 또는 계량화된 모델을 기초로 작성된 것이나, 당사의 공식적인 의견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 이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은 작성자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지표, 차익 등으로 주요 이머징 혼조세

- ▶ 상해종합지수는 경기 선행지수인 6월 관방 및 HSBC PMI 지표 시장 예상 하회에 5%대 반락
- ▶ 홍콩 H지수가 특별행정자치구 설립일로 휴장, 2일 개장 예정
- ▶ 자카르타종합지수는 물가 상승률 시장 예상 하회, 제조업지표 상승 등에 힘입어 추가 상승
- ▶ VN지수는 PMI가 하락했다는 소식과 최근 랠리에 따른 차익실현 매물 출회로 소폭 반락

상해종합 5.2% 급락,
대부분 업종 동반 약세

■ 중국 시장

상해종합지수가 상해종합지수가 하루 만에 5.2% 반락하며 직전일의 반등폭을 반납했다. 강세로 출발한 증시는 오전에 강세를 보였으나 장 막판에 급락했다. 거래대금은 8,381억위안으로 직전일보다 소폭 줄어들었다. 경기 선행지수인 6월 관방 및 HSBC PMI 지표가 모두 시장 예상을 하회하며 경기 회복에 대한 의구심으로 투자심리가 약화됐다. 정부가 증시 급락을 막기 위해 추가 부양책들을 고려하고 있고 특별한 악재가 발표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직전일 상승으로 금일 매도물량이 쏟아졌다. 레저, 리테일, 자본재, 유틸리티, 운수, 소재, 반도체, 부동산 등 모든 업종이 일제히 하락했던 가운데 은행의 낙폭이 3.4%로 가장 적었다. 반면 석유가스 개혁안 출범 기대에 관련 테마주들은 강세를 보였다. 차스닥 지수는 오전에 5% 이상 상승했다가 오후에 3.5%까지 급락하면서 일일 변동폭이 9%에 달했다.

■ 홍콩 시장

홍콩증시는 특별행정자치구 설립일로 휴장, 2일 개장 예정

■ 인도네시아 시장

자카르타종합지수 0.1%
상승, 플랜테이션 등 업종
강세

자카르타종합지수는 0.15% 추가로 올랐으며 이틀 연속 강세를 보였다. 6월 제조업 PMI가 상승했다는 소식으로 경기 하강에 대한 우려가 진정됐다. 소비자물가 상승률도 시장 예상치를 하회해 물가 압력에 대한 우려가 완화됐다. 팜오일 가격이 강세를 보이면서 플랜테이션주에 호재로 작용했다.

■ 베트남 시장

VN지수 소폭 반락
대부분 업종 약세 전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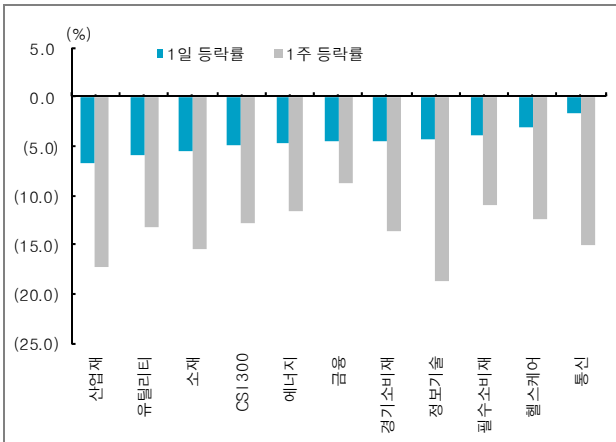
VN지수는 3거래일 만에 약세로 전환하며 0.3% 하락했다. PMI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하락했다는 소식과 최근 랠리에 따른 차익실현 매물 출회가 지수 약세의 주된 배경이었다. 약재 루머로 의료기기 업체 JVC는 11거래일 연속 하한가를 기록했다. 한편 정부의 규제 완화로 증권사에 대한 외국인 투자한도가 100%로 확대되면서 증권주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주요 이머징마켓 뉴스

시장 구분	주요 내용
중국	국가통계국, 6월 관방 제조업 PMI 50.2 (5월 50.2) 국가통계국, 6월 관방 비제조업 PMI 53.8 (5월 53.2) 6월 HSBC 제조업 PMI 49.4(컨센서스 49.6, 5월 49.2)
베트남	은행권 건전성 개선을 위해 은행권 영업 관리 강화할 것
베트남	국가증권위원회, 증권사에 대한 외국인 지분한도는 당장 100%로 적용된다
베트남	6월 HSBC 제조업 PMI 52.2 (직전치 54.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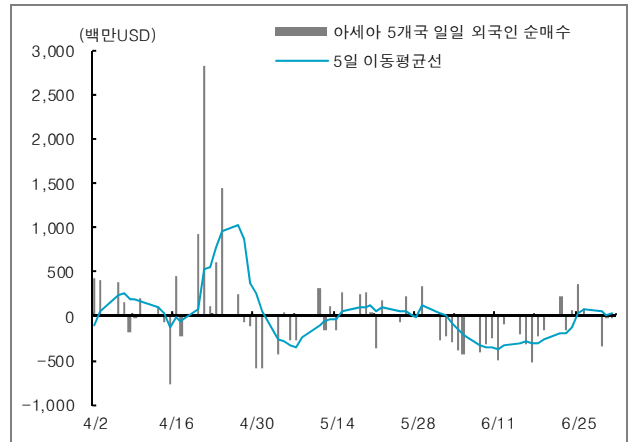
◆ 주요 이머징마켓 차트

[그림 1] 중국 CSI300 업종별 등락추이



자료: Bloomberg, 한국투자증권

[그림 2] 아세아 5개국* 외국인 순매수 규모 추이



주: 대만, 인도, 인도네시아, 태국, 베트남 5개국의 달러자금 흐름
자료: Bloomberg, 한국투자증권

◆ 주요 이머징마켓 주가지수 추이

(단위: p, %)

구분	7/1(수)	전일 대비(%)	5거래일 전 대비(%)	1개월 전 대비(%)	연초 대비(%)
중국 상해종합	4,053.70	-5.23	-13.57	-5.23	25.32
홍콩 H	12,981.23	2.26	-4.62	0.00	8.32
중국 차스닥	2,759.41	-3.47	-18.44	-3.47	87.49
인도 SENSEX	28,011.03	0.83	1.01	0.83	1.86
인도네시아 JCI	4,917.80	0.15	-0.72	0.15	-5.91
태국 SET	1,504.55	-0.44	0.09	0.00	0.46
베트남 VN	591.50	-0.26	0.25	-0.26	8.41
MSCI 이머징마켓	972.25	1.34	-2.12	0.00	1.67

주: 1일 오후 6시 00분 기준

시장 동향과 특징주

그리스 우려에도 불구하고 이를 연속 상승 마감

- 그리스의 채무불이행과 유로존 탈퇴 우려에 전일 급락했던 미국증시는 이날 그리스 사태에 대한 관망세가 짙은 가운데 결국은 그리스 위기가 해결될 것이라는 낙관론에 힘입어 반등에 성공. 코스피는 사모 금융투자 등 기관 매수와 외국인인 사흘 만에 순매수로 전환하며 상승을 주도, 장중 2,100P까지 상승하며 1% 이상 급등, 2,097P로 마감. 코스닥은 투신 등 기관 매수에 힘입어 2.5% 가까운 급등세를 보이며 760P선 돌파에 성공, 연중 최고치를 경신하며 이를 연속 상승 마감
- 종목별 움직임을 살펴보면, 편의점 업계의 구조적 성장에 따른 실적 개선 기대감에 GS리테일이 신고가를 경신했으며, 한화그룹으로 최대주주가 변경된 삼성테크윈은 방산사업부문 성장 기대감에 20% 이상 급등. 발기부전치료제 공개 소식에 CMG가 상한가를 기록했으며, 5월 의약품 판매액 증가 소식에 제약주의 강세가 두드러짐. 또한, 메르스 사태가 진정세를 보임에 따라 그간 피해 업종으로 부각됐던 화장품 업종이 급등했으며, 하나투어, 모두투어도 강세를 보임. 반면, 국제 상품시장에서 곡물가격이 급등함에 따라 음식료품 업체의 수익성이 악화될 것이라는 우려감에 CJ제일제당을 비롯해 대상, 농심홀딩스, 롯데푸드 등이 급락세를 보임

종목/이슈	내 용
GS리테일(007070) ▶50,900(+8.99%)	2분기 실적 개선 기대감에 신고가 경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편의점 업계의 구조적 성장이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매출 비중의 70%를 차지하는 편의점의 성장 폭 확대와 슈퍼마켓의 매출 반등에 따른 실적 개선 기대감에 신고가 경신 - 홈쇼핑 픽업 서비스, 사진인화 서비스, 비콘 서비스 확대 등 근린생활 밀착 서비스 제공으로 구매객수 성장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되며, 가정 주류 문화 확산, 도시락 품질 개선으로 슈퍼, 요식업 등 유통 범위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
삼성테크윈(012450) ▶35,300(+20.48%)	최대주주 변경에 따른 긍정적인 기대감에 초강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명을 한화테크윈으로 변경하고 최대주주가 삼성전자 외 특수관계인 6인에서 한화 외 특수관계인 1인으로 변경, 한화그룹과의 시너지 효과 기대감에 초강세 - 한화그룹의 모태인 방위산업 부문은 동사와 삼성탈레스 인수로 매출 규모가 2조6,000억대로 늘어나 업계 1위로 등극
 제약주	의약품 판매액 증가 소식에 강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월 의약품 판매액이 전년동기대비 3.8% 증가하며 견조한 성장세를 보였다는 소식에 강세 - 대화제약(067080, +12.23%), 동아쏘시오홀딩스(000640, +11.55%), 보령제약(003850, +10.95%), 동화약품(000020, +10.25%), 한미약품(128940, +9.64%), 경동제약(011040, +7.82%) 등 강세
화장품 관련주	메르스 사태가 진정세를 보이며 강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메르스 추가 감염자와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으며 메르스 사태가 진정국면에 접어드는 모습을 보임에 따라 그간 피해 업종으로 부각됐던 화장품 업종이 큰 폭의 상승세를 보임 - 한국화장품제조(003350, +12.37%), 한국주철관(000970, +11.14%), 한국화장품(123690, +6.79%), 코리아나(027050, +6.02%), 한국콜마(161890, +3.94%) 등 강세

52주 신고가

종목	내 용
블루콤(033560) ▶18,000(+3.7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바일 기기 수요 증가와 스트리밍 서비스 확대에 블루투스 헤드셋 수요 증가에 따른 실적 개선 기대감에 신고가 경신
한국항공우주(047810) ▶82,500(+3.7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분기 실적이 분기 사상 최대치를 기록할 것이라는 기대감 및 최근 헬기개발사업 체결 등 성장 기대감에 신고가 행진

상기 종목들은 전일 시장에서 특징적인 흐름을 보인 주요 종목들로 추천종목과는 별개이니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단기 유망종목: 에스원 외 5개 종목

(단위: 원, %)

종 목 (코 드)	현재가 (수익률)	편입가 (편입일자)	투자 포인트
에스원 (012750)	78,400 (-0.1)	78,500 (7/0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정용 보안 수요 증가 추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2분기에 시스템보안 가입자 성장세 지속 - 하반기에 건물관리, 상품판매, 정보보안 등 매출이 집중되는 특성을 감안할 때 하반기 수익성 개선 예상 - 통합 보안업체로 도약, 시장 지배력 확대, 정책적 지원, 주택임대관리 사업 진출 등으로 장기 성장성과 수익성 강화 예상
대림산업 (000210)	84,500 (+3.0)	82,000 (7/0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화부문의 고마진 추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건설부문은 해외 저가공사 관련 부담 완화와 국내 분양시장 호황에 따른 수혜로 2분기 수익성 개선 예상 - 유화부문 핵심 자회사인 여천NCC, 건설 자회사인 삼호와 고려개발 등 주요 자회사들의 턴어라운드 예상
이수페타시스 (007660)	6,250 (-1.9)	6,370 (6/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네트워크장비용 MLB(Multi-Layer Board)생산 전문업체로 네트워크장비 시장 성장에 따른 수혜 지속 예상 - 중국 후난 법인의 영업적자에도 불구하고, 1분기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한 가운데 수주 호조와 자회사 수익 개선으로 실적 개선 모멘텀 지속 예상 - 하반기 중화권 신규 거래처 확보로 장기 성장성 부각 가능성
진성티이씨 (036890)	6,760 (-3.2)	6,980 (6/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계 최대 중장비 업체인 캐터필라(Caterpillar)향 매출은 장기공급계약 물량을 바탕으로 올해도 안정적으로 증가할 전망. 또한 글로벌 메이저 굴삭기 업체들의 부품 아웃소싱 확대 추세 속에 Bobcat, Komatsu 등으로의 공급 물량 확대 지속 - 해외 고객사 비중 확대와 중국 법인의 턴어라운드로 수익성 개선 추세 지속 예상
KT&G (033780)	95,300 (-0.4)	95,700 (5/0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격인상으로 연초 감소했던 담배수요 및 시장 점유율의 점진적인 회복세와 ASP 개선 및 비용통제 등을 감안할 때 수익성 개선 추세 지속 예상 - 담배 수출 증가와 홍삼사업의 면세 실적 및 내수 수요 회복을 통한 실적 개선과 배당 매력도(금년 예상 DPS 3,700원)를 주목할 필요
백산 (035150)	5,880 (+18.2)	4,975 (4/2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LF쏘나타를 통해 진입에 성공한 시트용 합성피혁 부문 적용 모델 확대로 안정적인 성장 가능 전망 - 캐시카우인 신발부문은 경쟁사의 공장 해외 이전으로 인한 반사이익 등으로 전년대비 15% 이상 성장 예상 - 카시트 적용 모델 확대, 모바일 제품으로의 가족 케이스 공급 등 사업포트폴리오 확대를 감안할 때 추가 상승여력 상존

■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상기 제시된 유망종목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당사는 현재 대림산업, KT&G의 발행주식을 기초자산으로 ELW(주식워런트증권)를 발행 중이며, 당해 ELW에 대한 유동성 공급자(LP)입니다.
-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3자에게 사전에 제공한 3사실이 없습니다.
- 당사는 동 자료의 금융투자분석사와 배우자는 자료 작성일 현재 본 자료와 관련해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중장기 유망종목: KCC 외 5개 종목

(단위: 원, %, 십억 원, 배)

편입종목 (코드)	현재가 (수익률)	편입가 (편입일자)	2015년 추정실적				
			매출액	영업이익	순이익	EPS	PER
KCC (002380)	489,000 (-13.1)	563,000 (3/31)	3,528	329	260	26,571	18.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자재 시장의 성장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국제유가 하락으로 원재료 매입액 감소에 따른 수익성 개선 예상 - 2014년 기말 배당금을 6년만에 주당 8천원으로 1천원 상향하며 주주가치 제고에 노력 - 안정된 사업 포트폴리오와 풍부한 자산가치를 감안할 때 재평가 가능성 상존 				
현대모비스 (012330)	208,500 (-15.9)	248,000 (2/2)	38,488	3,297	4,058	42,468	4.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대기아차의 친환경차 라인업 강화와 준중형모델들의 ADAS(운전보조장치) 채택 확대 등으로 안정적인 성장세 지속 예상 - 현대/기아차의 누적 판매 대수 확대에 따른 AS부품 판매의 구조적 증가와 이익 방어력을 주목할 필요 - 견고한 펀더멘털 및 글로벌 peer 대비 상대적 저평가 매력 부각 가능성 				
엔씨소프트 (036570)	209,500 (+16.1)	180,500 (1/2)	861	266	220	11,035	19.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극적인 주주가치 제고에 나선 가운데 기존 게임의 ARPU 상승과 길드워2 확장팩 출시 등으로 영업이익 개선세 지속 예상 - 리니지1의 수익성 높은 신규 아이템들이 지속적으로 개발되고 있는 가운데 리니지, 아이온, 블레이드앤소울의 추가 구성상품 선택을 통한 ARPU 상승 예상 - 2015년에는 블레이드앤소울 TCG, 패션스트리트, 팡야 등 모바일 게임 다수 출시 예정 				
LG하우시스 (108670)	152,500 (-4.4)	159,500 (1/2)	3,137	163	123	12,279	12.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방산업의 회복으로 PVC 창호, 바닥재 등 건자재 건자재 매출 성장이 예상되며, 자동차, 가전관련 소재도 거래처 확대 등으로 안정적인 성장기 가능할 전망 - PVC, 가소제, MMA 등 화학제품 가격 하락으로 원재료 감소에 따른 수익성 개선 예상 - 미국에 자동차 원단 공장 증설, B2C 건자재 확대(온라인 '지인몰' 오픈 등) 등 다각적 투자를 통한 장기 성장동력 강화 				
LG생활건강 (051900)	796,000 (+28.8)	618,000 (1/2)	5,083	600	427	25,640	3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5년에도 중국인 관광객 증가에 따른 면세 매출호조와 방문판매 매출증가로 화장품 부문의 실적은 개선세 지속 예상 - 화장품 면세채널과 중국사업 정상화, 생활용품과 음료부문의 경쟁완화 등에 따른 수익성 개선을 주목할 필요 				
SK하이닉스 (000660)	42,800 (-10.4)	47,750 (1/2)	19,340	6,100	5,180	7,120	6.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버, 모바일, 그래픽 등 D램 수요 확대로 D램 가격 안정세 지속 - 애플 및 OEM 수요, 스마트폰 신제품 수요 등을 감안할 때 2015년에도 안정적인 실적 흐름 지속 예상 - 영업활동을 통한 순현금 창출능력을 감안할 때 자사주 취득 및 주주배당을 통한 적극적인 주주 환원 정책에 대한 기대 유효 				

■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상기 유망종목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당사는 현재 LG생활건강, 엔씨소프트, SK하이닉스, 현대모비스, KCC의 발행주식을 기초자산으로 ELW(주식워런트증권)를 발행 중이며, 당해 ELW에 대한 유동성 공급자(LP)입니다.
-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3자에게 사전에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동 자료의 금융투자분석사와 배우자는 자료 작성일 현재 본 자료와 관련해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손해보험: 실적 개선 국면 여름까지 이어진다

■ 실적 개선 국면 여름까지 이어진다

손보 6사의 5월 합산 순이익은 2,562억원으로 전년대비 28.5%, 전월 대비 42.3% 증가했다. 양호한 실적의 배경은 영업일수 감소에 따른 보험청구금 감소, 메르스 여파로 교통량이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1) 근로자의 날, 어린이날, 석가탄신일 연휴로 영업일수가 18일에 불과했고(4월 영업일수는 22일), 2) 5월은 행락철이지만 메르스 여파로 교통량이 감소해 자보 손해율도 전월 대비 1~2.5%p 개선되었다. 메르스 여진이 최소 6~8월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기에 보험계약자의 병원 방문 빈도 하락에 따른 위험손해율 개선, 교통량 감소에 따른 자보손해율 하락 효과는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따라서 손보사의 2분기 실적은 시장 기대치를 넘어설 가능성이 크다. 현대해상과 동부화재의 4~5월 누적 순이익은 우리 2분기 추정치의 85~95%를 달성했으며, LIG손해보험, 메리츠화재와 한화손해보험은 4~5월 누적 순이익이 우리 추정치를 초과 달성한 상황이다.

■ 삼성화재의 자보 시장 독주에 유연하게 대처 중인 2위권 손보사

삼성화재의 공격적인 온라인 자보 영업으로 시장 쏠림을 우려했지만 아직까지는 경쟁사가 유연하게 대처 중인 것으로 보인다. 1~5월 누적 기준 삼성화재의 자동차 경과보험료는 5.5% 성장했는데, 경쟁사의 계약 이동도 있지만 기존 오프라인 고객 중 일부가 온라인으로 전환한 경우도 다수 포함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반면, 메리츠화재를 제외한 2위권 손보사의 자동차 경과보험료는 누적 기준 전년대비 12.8% 성장했다. 1) 전년 단행한 영업용/업무용 자보 요율 인상, 2) 특약보험료 조정, 3) 대물담보 가입 증가 및 4) 고객/담보별 요율 차등 적용이 실질적인 대당 경과보험료 증가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누적 자보손해율은 전년대비 5~7%p 상승했지만, 삼성화재를 포함한 업계 전반적인 현상이다. 상기 간접적인 요율 조정 효과에 힘입어 월별로는 상고하자 방향성이 뚜렷할 전망이다. 따라서 자보시장은 삼성화재를 포함한 2위 손보 모두에게 우호적으로 전개 중인 것으로 판단한다.

메리츠화재와 한화손보의 누적 자보 경과보험료는 각 5.8%, 3.1% 역성장했다. 과거 손해율 상승의 주 원인이던 GA 채널의 계약 및 불량 계약을 걸러내고 우수 담보 중심으로 신계약을 체결한 이유가 크다. 단기적으로 매출 감소에 따른 사업비 증가(고정비 부담)가 불가피하지만, 우수 포트폴리오 전환이 가능하다면 장기적 관점에서 부정적으로 보기는 힘들다.

■ 업황 개선 구간, 2위 손보사 강세

6월 금통위 이후 손보 6사는 평균 7.7% 상승했다. 개선속도는 느리지만 요율 조정 효과가 점차 반영되는 상황에서 기준금리 인하 불확실성 해소가 주가 반등의 계기가 되었다. 그간 아웃퍼폼했던 삼성화재 대비 2위 손보사가 큰 폭으로 상승했다. 업황이 부진한 시기에는 안정적인 포트폴리오를 보유해 실적 안정성이 부각되는 대형사가 선호되었지만, 업황 개선 시기에서는 장기간 부진했던 2위 손보사의 실적 개선 폭이 클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5월 손보사의 위험손해율은 전월 대비 10%p 내외 하락했는데, 영업일수 효과를 제외 시 기대치에 비해서는 여전히 개선속도가 느리다. 그러나 전년부터 도래한 갱신주기 및 연초 실손보험 요율 조정으로 추가 악화 가능성 또한 제한적이다. 과거 2위 손보사의 위험손해율, 자보손해율 악화 기간이 길었던 만큼 손해율이 돌아서는 시점 이후부터는 실적 개선 구간이 길 것으로 판단한다. 메르스 우려가 해소되는 시점에 이연되었던 보험금 청구로 손해율이 단기 급등하겠지만, 정상화의 과정이기에 주가 영향은 일시적일 것으로 판단한다.

하반기 우호적으로 전개될 대내외 요건을 고려하면 일시적인 부진 요인보다 개선 가능성에 주목할 시기이다. 하반기는 미국 연준의 금리 인상 시점과 국내 장기채의 방향이 보험주를 견인할 것으로 전망한다. 우리는 과거 부진했던 회사를 우선적으로 선호하기에 현대해상 최선호, 한화손보 차선호를 유지한다. 삼성화재의 4Q Forward PBR은 1.3배로

2위 손보사 대비 약 30~50% 프리미엄을 받고 있는데, 2위 손보사의 손해율 개선이 가시화되면 2위 손보사가 점차 프리미엄 갭을 좁혀갈 가능성이 크다. 한화손보는 매분기 우리의 전망치를 큰 폭 상회하는 실적을 시현하고 있지만, 아직 4Q Forward PBR이 0.63배에 불과하다. 우리는 2015년 연간 순이익 587억원(1~5월 누적 394억원), ROE 8.1%를 예상하지만, 현재 실적 추이를 고려 시 초과 달성 가능성을 열어 두고 있다. 따라서 적극적 관심이 필요한 시기가.

■ LIG손보, 메리츠화재, 한화손보 4~5월 누적 순이익은 2Q15 추정치 상회

삼성화재(000810, 매수/TP 330,000원): 순이익은 877억원으로 전년대비 10.7% 부진하나 전월 대비로는 12.7% 증가했다. 4~5월 누적 순이익은 1,654억원으로 우리의 2분기 순이익 전망치 2,440억원의 67.8%에 해당하는 양호한 실적이다. 위험손해율이 손보사 중 가장 양호한 69.4%로 전월 대비 13.4% 하락한 반면 일반보험은 82.8%로 정상적 수준 대비 높은 손해율을 기록하였다.

현대해상(001450, 매수/TP 35,000원): 순이익은 387억원으로 전년대비 75.5%, 전월 대비 68.4% 증가했다. 4~5월 누적 순이익은 618억원으로 우리의 2분기 순이익 전망치 653억원의 94.6%에 해당한다. 6월도 메르스 효과, 인천 공항철도 지분 매각으로 양호한 실적이 예상됨에 따라 2분기 순이익은 우리 추정치를 큰 폭으로 상회할 전망이다. 일시적인 요인이지만 위험손해율은 연중 최저치인 86.9%로(누계 94.0%), 전년대비 4.1%p, 전월 대비 10.6%p 하락했다.

동부화재(005830, 매수/TP 66,000원): 순이익은 597억원으로 전년대비 19.9%, 전월 대비 71.2% 증가했다. 4~5월 순이익은 946억원으로 우리의 2분기 순이익 전망치 1,117억원의 84.7%에 해당한다. 일시적이지만 당월 합산비율은 99.3%로 보험손익이 흑자로 돌아섰다. 1) 4월 성과급 지급으로 높아졌던 사업비율이 정상적인 수준으로 회귀했고(-3.4%p MoM) 2) 위험손해율이 79.3%수준으로 전년대비 3.0%p, 전월 대비 14.0%p 개선되었기 때문이다.

LIG손해보험(002550, 중립): 순이익은 308억원으로 전년대비 164.4%, 전월 대비 23.7% 증가했다. 위험손해율은 전년대비 3.2%p, 전월 대비 8.4%p 하락하며 2위 손보사 중 최저인 73.2%를 기록했다. 반면, 일반보험 손해율은 118.7%로 큰 폭으로 상승했는데 국내에서 30억원 상당의 고액사고가 있었고, 미국 지점에서 약 50억원의 IBNR 적립 요인이 있었다. 5월 미국지점의 일반보험 경과보험료는 30억원 수준인데, 전년 동월 80억원 대비 크게 줄어든 상황이다. 손해율이 높았던 과거 계약을 줄이며 우수 물량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변경 중이다. 미국지점의 IBNR 부담이 연내 지속될 전망이지만, 2016년부터는 손해율이 안정세로 돌아설 것으로 예상된다.

메리츠화재(000060, 매수/TP 15,500원): 순이익은 272억원으로 전년대비 173.0%, 전월 대비 112.8% 성장한 양호한 실적을 시현했다. 4~5월 누적 순이익은 400억원으로 우리의 2분기 순이익 전망치 358억원을 11.7% 초과 달성했다. 위험손해율은 80.1%로, 전년대비 1.3%p, 전월 대비 12.2% 대폭 개선되었다. 1분기 단행한 구조조정 효과에 힘입어 사업비율은 전월 대비 1.1%p 하락한 18.1%를 시현했다. 투자이익률은 4.3%으로 전년대비 0.3%p, 전월 대비 0.9%p 상승했다.

한화손해보험(000370, 매수/TP 6,800원): 순이익은 120억원으로 전년대비 57.5%, 전월 대비 79.8% 성장했다. 5월 누적 순이익은 186억원으로 우리의 2분기 순이익 전망치 163억원을 14.3% 초과 달성했다. 위험손해율은 전년 대비 9.0%p 하락, 전월 대비 13.1%p 하락한 86.5%로 손보 6사 중 손해율 개선 폭이 가장 크다. 지난 6월 한화손보는 (주)한화와의 라이선스 계약 체결을 통해 연간 기준 약 159억원의 로열티를 지급하기로 결정하였다. 연초 경영계획에 반영했던 그룹 공동광고 비용을 브랜드로알티로 전환되는 것이기에 실적에 미치는 영향은 무의미한 수준이다. 상반기에 책정된 그룹 광고비의 절반 수준을 집행했기에 하반기 추가 반영부분은 50~60억원으로 예상된다.

*상기 보고서는 2015년 6월 30일 당사 홈페이지에 게시된 자료의 요약본입니다.

매일유업(005990)

매수(유지)

목표가: 52,000원(유지)

종가(6/30): 39,500원

2Q15 Preview: 좋아질 일만 남았다

■ 2분기 연결 영업이익 전년동기대비 9.4% 감소 전망

매일유업의 2분기 연결 매출액은 전년동기대비 5.9% 증가하나 영업이익은 9.4% 감소할 전망이다. 영업이익이 부진한 이유는 별도 실적이 원유관련 비용 부담, 신제품관련 마케팅비 증가, 그리고 6월의 메르스 영향으로 인한 판매 위축으로 감소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전반적으로는 전년동기대비 영업이익이 53.4% 감소했던 1분기에 비해서는 개선되는 추세이다. 새로운 성장의 축인 중국 분유 수출은 낮은 기저 효과로 전년동기대비 120%가량 성장한 110억원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1분기와 유사한 수준이다. 시유의 영업이익률은 1분기에 비해서는 개선됐으나 여전히 적자를 기록했고, 발효유도 아직까지는 대용량 신제품에 대한 마케팅비 부담이 커 흑자전환에는 실패한 것으로 보인다. 아웃도어 커피샵인 폴바셋의 매출액도 6월의 메르스 영향으로 백화점과 대형몰 판매가 역성장해 종전의 고성장세가 주춤한 것으로 추산된다.

■ 원유가격 '동결' 로 결정돼 최대 악재 완화

상반기 실적 부진을 뒤로 하고 하반기에는 전년동기대비 이익이 증가세로 돌아설 전망이다. 저지방우유와 발효유 신제품 관련 마케팅비 등 전반적인 판매비 축소 노력이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다, 원유관련 손실도 전년동기대비 비슷하거나 줄어들 개연성이 커 보인다. 30일 오후에 낙농진흥회가 이사회를 열어 8월부터 시행될 원유가격을 현재 수준에서 인상치 않고 동결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2013년 하반기부터 원유가격연동제(원유 기본가격 = 기준원가<통계청 우유생산비 변화분 반영> + 변동원가<소비자물가 상승률 반영>의 구조)가 도입됨에 따라 원유공급과잉 문제가 심화돼 이로 인한 유가공업체의 손실이 매우 커진 상황이었다. 지난해 이 제도가 누적연동제도 변경되어 원유가격은 2년째인 올해 하반기에 조정될 예정이었다. 역사적으로 원유가격은 대부분 인상돼왔기 때문에 동결에 대한 기대가 크지 않았으나 실현되었다. 이는 역사적 최대 수준인 원유재고와 유가공업체의 관련 손실을 반영한 조치다. 따라서 동사의 관련 비용 부담은 고점을 찍은 것으로 보인다. 우리는 실적 전망을 메르스의 부정적 영향과 원유가격 동결(기준 5.3% 인상 추정)의 긍정적 영향을 반영해 조정했으나, 조정폭이 매우 작아 목표주가 52,000원을 그대로 유지한다. 3분기와 4분기 영업이익이 43.6%, 200.7% 증가하고 연간 영업이익률은 지난해 2.0%에서 올해 2.4%로 개선될 전망이다.

	매출액 (십억원)	영업이익 (십억원)	순이익 (십억원)	EPS (원)	증감률 (%)	EBITDA (십억원)	PER (x)	EV/EBITDA (x)	PBR (x)	ROE (%)	DY (%)
2013A	1,364	35	22	1,703	(0.5)	69	26.3	10.0	1.8	6.8	0.3
2014A	1,448	29	23	1,784	4.8	63	20.9	9.3	1.4	6.5	0.3
2015F	1,553	38	27	2,159	21.0	72	18.3	7.7	1.3	6.9	0.3
2016F	1,674	52	39	2,715	25.8	87	14.5	6.4	1.3	8.7	0.3
2017F	1,785	72	53	3,720	37.0	107	10.6	4.8	1.1	10.8	0.3

주: 순이익, EPS 등은 지배주주지분 기준

*상기 보고서는 2015년 6월 30일 당사 홈페이지에 게시된 자료의 요약본입니다.

유테크(178780)

Not rated

종가(6/30): 10,850원

오랜만에 나타난 휴대폰 부품업종의 강자

■ 몰드프레임과 도광판 제조 기술은 세계 최고의 수준으로 판단

유테크는 휴대폰의 BLU에 장착되는 몰드프레임과 도광판을 제조하는 업체로서 전체 매출액 중 59%가 A사로, 15%가 삼성전자로 납품된다(2014년 기준). 동사의 금형/성형 기술은 세계 최고의 수준으로 판단되는데, 1) 도광판의 두께가 글로벌로 가장 얇은 0.3 mm 이하의 제조가 가능하고, 2) 압출금형과 압출성형을 수행하며, 3) 몰드프레임은 이색성형 능력을 보유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4) 동사는 A사 내에서 2개의 주요 납품업체로 도약했다.

■ 1Q15 영업이익률은 전년대비 대폭 상승

1Q15 매출액은 전년대비 45.9% 증가한 143억원을, 영업이익률 역시 대폭 상승한 22.4%를 기록했다. 1Q15 실적 호조의 요인은 1) A사 스마트폰 판매대수가 전년대비 대폭 증가한 요인도 있지만, 2) 2014년까지 크게 발생했던 신규 제품용 연구개발비용이 2015년부터 대폭 감소했고, 3) 제조 수율 역시 눈에 띄게 상승하고 있기 때문이다.

■ 중국으로의 성장 스토리와 제품 다각화 스토리를 함께 보유

동사는 중국 스마트폰 업체들의 점유율 상승에 대응하기 위해 2013년에 중국 법인을 설립하고 연간생산계획과 60백만개를 확보했다. 2015년부터 중국법인을 통한 성장스토리가 본격적으로 전개될 전망이다. 또한 기존 제품 이외에 1) 초슬림 이색성형 몰드프레임, 2) 자동차용 디스플레이에 적용될 CPC(Curved Plastic Cover), 3) 원가가 낮은 Roll to Roll 방식의 도광판 등이 2015년 하반기부터 차례차례 출시될 전망이다.

■ 올해 하반기에 A사의 신규 스마트폰용 부품으로 실적모멘텀이 더욱 강해질 전망

올해 하반기에 A사의 신규 스마트폰에 장착되는 몰드프레임과 도광판의 경우 두께가 더욱 얇아지고 단가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전망되어 전년대비 실적모멘텀이 더욱 강해질 전망이다. 또한 올해에도 A사의 신규 스마트폰은 카메라모듈, DRAM, 터치 기능 등에서 개선된 성능을 나타낼 것으로 전망되어 이전 모델 대비 15.2% 증가한 2H15 판매대수를 기록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2015년 동사의 매출액은 전년대비 41% 증가한 721억원을, 영업이익은 85% 증가한 124억원(예상영업이익률 17.2%)을 기록할 전망이다.

■ LCD 디스플레이의 업황에 대한 리스크는 기우에 불과, 부채비율도 계속 하락

스마트폰에서 OLED의 비중이 상승하고 LCD의 비중이 낮아질 전망이지만 A사는 LCD를 계속 장착할 것으로 예상되어 이러한 리스크는 기우에 불과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동사는 상장 전에도 부채비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어 재무구조 역시 매우 안정적인 것으로 판단된다.

	매출액 (십억원)	영업이익 (십억원)	순이익 (십억원)	EPS (원)	증감률 (%)	EBITDA (십억원)	PER (x)	EV/EBITDA (x)	PBR (x)	ROE (%)	DY (%)
2012A	38.9	2.6	2.5	843	(10.9)	7.2	NM	NM	NM	37.0	NM
2013A	46.7	6.0	4.5	1,772	110.1	10.0	NM	NM	NM	39.0	NM
2014A	51.4	6.7	4.2	1,293	(27.0)	12.5	NM	NM	NM	21.7	NM
2015F	72.1	12.4	9.3	2,108	63.1	18.2	5.1	3.8	1.7	33.1	0.0
2016F	90.1	14.8	11.2	2,299	9.1	20.6	4.7	3.0	1.3	29.4	0.0

주: 순이익, EPS 등은 지배주주지분 기준

*상기 보고서는 2015년 6월 30일 당사 홈페이지에 게시된 자료의 요약본입니다.

한국가스공사(036460)

매수(유지)
목표가: 71,000원(유지)
종가(6/29): 42,150원

2Q15 Preview: 이익 증가추세 지속

■ 2분기 영업이익 3.6% 증가 추정

2분기 매출액은 수입 LNG가격 하락과 판매량 감소 영향으로 전년동기대비 21.8% 줄어들지만, 공급비용(마진+공급 부대비용 회수) 단가가 20.3% 오른 영향으로 영업이익은 3.6% 늘어난 981억원으로 추정된다. 1분기에 이어 영업이익 증가추세가 이어지는 것으로 이 같은 추세는 한동안 계속될 전망이다.

■ 판매량도 줄고 요금도 인하됐지만 보장이익 규모는 커져

유가하락으로 LNG 도매요금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원료비(발전용 LNG 기준) 부담이 줄어드는 것이 매출액이 감소한 가장 큰 이유며, 2분기 LNG 판매량이 8.2% 감소한 것으로 추정되는 점도 매출액 감소에 영향을 미쳤다. 가스공사는 원료비연동제를 적용 받고 있어 LNG 수입가격 하락에 따른 매출액 감소는 이익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영업이익이 전년대비 소폭 늘어날 것으로 추정되는 가장 큰 이유는 천연가스 공급부문(규제사업)의 보장이익을 계산하는 근거가 되는 요금기저가 늘어났으며(14년 20.5조원에서 15년 22.2조원으로 증가), 세전 투자보수율(WACC)도 작년 5.0%에서 올해 5.1%로 상승했기 때문이다.

■ 가스요금 하락추세 멈춰

가스공사가 수입하는 LNG는 48%가 발전용으로, 52%가 도시가스용으로 판매된다. 발전용 LNG 가격은 가스공사가 수입하는 LNG 가격 변동 분을 반영해 매달 바뀌며, 도시가스용 LNG 도매가격은 두 달에 한번 변경된다(수입 LNG 가격이 3% 이상 등락할 경우). 발전용 LNG 가격은 작년 12월을 고점으로 6개월 연속 하락했으며, 도시가스용 LNG 도매가격도 올해 들어 세 번 연속(1월, 3월, 5월)으로 하락했다(그림 1). 보통 언론과 투자자들은 두 달 간격으로 변경되는 도시가스요금에 관심이 많은데, 7월에는 판매요금이 동결된다. 이는 유가에 수 개월 후행하는 LNG 수입가격이 충분히 하락했다는 의미다. 당분간은 현 수준의 가격이 유지될 전망이며, 전년대비 하락 폭이 여전히 큰 만큼 향후 요금인상요인이 발생해도 순조롭게 판매가격에 반영될 것이다.

■ '매수'의견 유지

가스공사는 여름 전후로 시장에서 소외되는 특징이 있다. 판매량이 감소하는 비수기이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에는 펀더멘털에 별다른 이슈가 없는 가운데 기관이 꾸준히 매도하는 수급요인으로 주가가 하락했다. 이슈가 될 만한 단기 호재는 없어 보이나 투자지표로 볼 때 저평가 국면이며, 이익 증가추세 전망을 신뢰할 수 있어 장기투자 관점에서 관심을 가져볼 만한 하다. 목표주가는 BPS 추정치에 목표 PBR 0.62배를 적용한 것으로 5월 11일에 제시한 것이다.

	매출액 (십억원)	영업이익 (십억원)	순이익 (십억원)	EPS (원)	증감률 (%)	EBITDA (십억원)	PER (x)	EV/EBITDA (x)	PBR (x)	ROE (%)	DY (%)
2013A	38,063	1,488	(201)	(2,669)	NM	2,611	NM	13.5	0.7	(2.3)	-
2014A	37,285	1,072	447	5,091	NM	2,219	9.7	15.9	0.5	4.8	0.5
2015F	29,582	1,348	585	6,338	24.5	2,607	6.7	12.6	0.4	5.8	0.6
2016F	30,460	1,474	663	7,185	13.4	2,842	5.9	11.5	0.4	6.3	0.6
2017F	31,225	1,573	758	8,212	14.3	3,022	5.1	10.2	0.3	6.7	0.6

주: 순이익, EPS 등은 지배주주지분 기준

*상기 보고서는 2015년 6월 30일 당사 홈페이지에 게시된 자료의 요약본입니다.

현대제철(004020)

매수(유지)
목표가: 93,000원(유지)
종가(6/30): 67,700원

2Q15 Preview: 증가하는 이익을 반영하지 않는 주가

■ 2분기 연결 영업이익 4,550억원으로 컨센서스 부합할 전망

2분기 실적이 시장 기대치를 충족할 전망이다. 연결 영업이익이 4,550억원(QoQ +33.9%, YoY +20.4%)으로 우리의 기존 추정치 4,610억원과 컨센서스 4,440억원과 유사할 것이다. 중국 가격 하락으로 판매량 가격이 하락했지만, 1) 판매량 증가에 따른 고정비 효과와 2) 하락한 원재료가 본격적으로 투입되면서 톤당 영업이익이 8.7만원으로 1분기 7.5만원 대비 15.7% 상승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 3분기 공급 감소로 철강 업황 개선 전망

6월 초순 중국의 일평균 철강 생산량이 165.1만톤으로 5월 후순의 176.1만톤 대비 6.2% 감소했다. 4월 중순부터 스프레드 하락이 이어져 손익분기점을 하회하는 업체들이 감소에 나선 결과라고 판단된다. 현재 중국 철강 업체 중 적자 기업이 30%를 상회하고 있다. 세계 금융 위기의 영향이 가장 극심했던 2009년 5월 다음으로 높다. 여기에 7~8월은 정기 보수가 집중되는 시기로 또 다른 공급 감소의 원인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 철강 공급 과잉 완화될 것

우리가 철강업종에 대해 ‘비중확대’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핵심 이유는 중국의 공급 과잉이 완화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의 철강산업의 고정자산투자증가율이 전방산업을 2013년부터 하회할 뿐만 아니라 마이너스로 전환되었다. 철강 공급은 감소하거나 적어도 늘지 않는 가운데 수요가 증가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된 것이다. 실제 수요를 자극할 만한 요인이 발생하면 되는데, 단기적으로는 1) 중국 부동산 경기 회복, 2) 중국 정부의 경기 부양 정책이, 중장기적으로는 AIIB(Asian Infrastructure Investment Bank)의 아시아 인프라 투자가 철강 수요를 견인할 것이다.

■ 완성된 현대종합제철, 목표주가 93,000원 유지

12개월 forward BPS에 목표 PBR 0.8배를 적용해 산출한 목표주가 93,000원과 투자의견 ‘매수’를 유지한다. 현대차 그룹의 중국 자동차 판매 부진 여파로 증가하는 이익에도 불구하고 2분기에 주가가 조정을 받았다. 자동차 판매 부진이 가격 인하 압력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인데, 우리는 적어도 2015년에는 추가적인 가격 인하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한다. 철강 제품 가격은 2분기에 이미 조정되었고, 원재료 가격은 반등해 수요가의 추가 가격 인하 요구의 명분이 약해졌기 때문이다. 글로벌 철강업체 중에 ROE 수준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PBR도 주목할 만한 부분이다.

	매출액 (십억원)	영업이익 (십억원)	순이익 (십억원)	EPS (원)	증감률 (%)	EBITDA (십억원)	PER (x)	EV/EBITDA (x)	PBR (x)	ROE (%)	DY (%)
2013A	13,533	763	692	8,193	(13.3)	1,477	10.5	13.3	0.8	6.0	0.6
2014A	16,762	1,491	765	6,600	(19.4)	2,680	9.6	7.1	0.5	5.7	1.2
2015F	17,175	1,733	992	7,977	20.9	2,989	8.5	6.4	0.6	6.8	1.1
2016F	19,571	2,120	1,176	8,857	11.0	3,525	7.6	5.1	0.6	7.4	1.1
2017F	22,506	2,600	1,606	12,095	36.6	4,072	5.6	4.1	0.5	9.5	1.1

주: 순이익, EPS 등은 지배주주지분 기준

*상기 보고서는 2015년 6월 30일 당사 홈페이지에 게시된 자료의 요약본입니다.

국내외 자금동향 및 대차거래

송승연(seungyeon.song@truefriend.com) ☎ 02-3276-6273

◆ 주요 증시 지표

구 분		6/24(수)	6/25(목)	6/26(금)	6/29(월)	6/30(화)	7/1(수)	
유가증권	종합주가지수	2,085.53	2,085.06	2,090.26	2,060.49	2,074.20	2,097.89	
	등락폭	4.33	-0.47	5.20	-29.77	13.71	23.69	
	등락종목	상승(상한)	532(16)	404(3)	290(6)	133(7)	555(3)	605(10)
		하락(하한)	290(0)	406(2)	518(0)	702(0)	266(0)	221(0)
	ADR	98.37	97.32	94.21	89.64	97.28	104.17	
	이격도	10 일	101.61	101.44	101.51	99.97	100.42	101.26
		20 일	100.95	100.99	101.31	99.96	100.64	101.70
	투자심리	70	60	70	70	80	80	
	거래량 (백만 주)	401	576	493	504	392	468	
	거래대금 (십억 원)	5,340	5,936	6,345	6,207	5,654	5,805	
코스닥	코스닥지수	746.62	753.66	750.50	733.04	742.27	760.67	
	등락폭	6.80	7.04	-3.16	-17.46	9.23	18.40	
	등락종목	상승(상한)	532(2)	404(1)	290(6)	133(4)	555(4)	750(6)
		하락(하한)	290(0)	406(0)	518(0)	702(0)	266(0)	269(0)
	ADR	99.18	97.84	95.02	89.44	96.89	103.93	
	이격도	10 일	103.18	103.62	102.65	99.89	100.66	102.57
		20 일	104.11	104.76	104.04	101.50	102.51	104.59
	투자심리	70	60	70	70	80	80	
	거래량 (백만 주)	507	540	606	477	463	552	
	거래대금 (십억 원)	4,045	4,361	4,932	4,093	4,154	4,358	

◆ 주체별 당일 순매수 동향

(단위: 십억원)

구 분	개 인	외국인	기관계 (금융투자)	(보험)	(투신)	(사모)	(은행)	(연기금 등)	기 타		
유가증권	매수	3,460.7	1,207.4	1,121.4	247.9	133.1	241.2	116.1	30.0	353.19	48.7
	매도	3,535.6	1,193.8	1,055.0	209.0	147.4	264.8	66.0	29.4	338.3	53.8
	순매수	-74.9	13.6	66.4	38.9	-14.3	-23.7	50.1	0.6	14.8	-5.1
	7월 누계	-74.9	13.6	66.4	38.9	-14.3	-23.7	50.1	0.6	14.8	-5.1
	15년 누계	208.8	8,310.5	-8,785.2	-5,309.8	-1,122.8	-5,751.1	-508.1	-567.9	4,474.5	266.0
	코스닥	매수	3,853.1	240.3	272.1	59.8	36.8	78.4	28.0	6.9	62.1
매도		3,927.6	250.1	168.0	37.8	22.8	34.9	16.3	4.9	51.3	48.6
순매수		-74.4	-9.8	104.1	22.1	13.9	43.5	11.8	2.0	10.8	-19.9
7월 누계		-74.4	-9.8	104.1	22.1	13.9	43.5	11.8	2.0	10.8	-19.9
15년 누계		647.2	-313.3	804.6	-168.0	314.0	456.3	30.3	-139.1	311.0	-1,138.5

주: 외국인은 외국인투자등록이 되어있는 투자자

국내외 자금동향 및 대차거래

◆ KOSPI 기관별 당일 매매 상위 업종 및 종목

(체결기준: 백만원)

투 신				연 기 금			
순 매 수		순 매 도		순 매 수		순 매 도	
서비스업	8,959	음식료품	-21,135	화학	25,913	운수장비	-17,211
의약품	7,950	전기,전자	-11,992	제조업	11,473	보험	-14,809
제조업	6,999	보험	-7,708	유통업	10,452	전기,전자	-12,804
KT&G	4,277	CJ제일제당	-19,857	SK하이닉스	8,465	삼성전자	-19,476
한미약품	4,130	LG디스플레이	-7,278	롯데케미칼	7,127	현대모비스	-13,234
NAVER	4,065	KODEX 200	-5,279	한화	7,034	삼성생명	-6,933
엔씨소프트	3,579	하나금융지주	-4,915	신세계	6,346	현대건설	-5,895
성신양회	2,919	삼성생명	-4,057	삼성에스디에스	6,040	LG생활건강	-4,954

(체결기준: 백만원)

은 행				보 험			
순 매 수		순 매 도		순 매 수		순 매 도	
화학	4,210	유통업	-2,934	의약품	13,315	서비스업	-15,270
제조업	1,169	음식료품	-1,509	화학	8,612	운수장비	-9,692
전기,전자	1,112	건설업	-1,419	제조업	6,011	보험	-9,418
롯데케미칼	1,196	SK네트웍스	-3,226	한미약품	6,255	TIGER 200	-12,984
아모레퍼시픽	1,172	TIGER 중국소비테마	-2,797	삼성중공업	5,691	NAVER	-8,706
제일모직	849	현대건설	-2,336	KT&G	4,028	현대차	-5,580
삼성생명	679	현대모비스	-1,247	LG생활건강	3,797	CJ	-4,581
두산	635	TIGER 경기방어	-983	아모레퍼시픽	3,705	하나금융지주	-3,992

◆ KOSPI 기관/외인 당일 매매 상위 업종 및 종목

(체결기준: 백만원)

기 관				외 국 인			
순 매 수		순 매 도		순 매 수		순 매 도	
화학	70,334	음식료품	-43,531	전기,전자	56,959	유통업	-30,252
의약품	40,087	보험	-33,698	화학	31,651	운수장비	-18,919
유통업	27,220	전기,전자	-28,252	금융업	17,666	음식료품	-13,060
KODEX 레버리지	35,365	CJ제일제당	-35,454	삼성전자	62,531	SK하이닉스	-15,532
삼성중공업	20,849	삼성전자	-24,366	하나금융지주	23,096	현대차	-14,069
한미약품	19,988	하나금융지주	-18,982	아모레퍼시픽	21,445	오리온	-13,313
엔씨소프트	14,702	현대모비스	-17,886	LG생활건강	13,860	롯데쇼핑	-9,969
롯데케미칼	12,281	KODEX 인버스	-16,016	현대모비스	13,449	신세계	-9,882
호텔신라	11,981	삼성생명	-15,250	TIGER 200	10,697	현대엘리베이	-7,021
아모레퍼시픽	11,310	TIGER 유동자금	-14,927	POSCO	10,335	삼성전자우	-6,638
LG화학	10,765	POSCO	-14,091	삼성테크윈	9,733	OCI	-6,213
삼성에스디에스	10,057	삼성화재	-13,062	한국전력	8,119	고려아연	-6,054
한화케미칼	9,273	LG디스플레이	-11,737	한미약품	8,064	다우기술	-5,425

주: 외국인인 외국인투자등록이 되어있는 투자자

국내외 자금동향 및 대차거래

◆ KOSDAQ 기관별 당일 매매 상위 업종 및 종목

(체결기준: 백만원)

투신		연기금	
순매수	순매도	순매수	순매도
인터넷	18,774	운송장비,부품	-1,037
계약	3,787	기타서비스	-888
금융서비스	3,245	금융	-275
다음카카오	18,892	마이크로컨텍솔	-996
선데이토즈	2,835	NICE평가정보	-888
컴투스	1,992	휴온스	-849
모두투어	1,942	서원인텍	-769
서울옥션	1,794	한국토지신탁	-530

은행		보험	
순매수	순매도	순매수	순매도
인터넷	1,047	소매	-869
음식료,담배	706	기타제조	-392
계약	558	컴퓨터서비스	-294
다음카카오	1,031	서부T&D	-873
매일유업	663	손오공	-359
제이브이엠	481	아이크래프트	-288
삼아제약	288	에스에이엠티	-287
코맥스	224	티씨케이	-278

(체결기준: 백만원)

기관		외국인	
순매수	순매도	순매수	순매도
인터넷	52,472	전문기술	-6,374
계약	13,220	의료,정밀기기	-5,726
종이,목재	7,542	오락,문화	-1,191
다음카카오	52,753	휴온스	-6,590
셀트리온	11,550	CJ E&M	-5,997
삼성엘엔에스	7,729	오스템임플란트	-2,052
선데이토즈	6,029	로만손	-1,760
바이로메드	5,840	원익IPS	-1,452
리홈쿠첸	5,542	크리스탈	-1,409
메디톡스	2,771	파라다이스	-1,166
컴투스	2,469	녹십자셀	-1,151
차바이오텍	2,202	뷰웍스	-1,120
모두투어	2,095	코오롱생명과학	-1,105

외국인		외국인	
순매수	순매도	순매수	순매도
인터넷	13,594	의료,정밀기기	-1,682
종이,목재	4,014	전문기술	-1,632
금융서비스	3,357	기계,장비	-1,191
다음카카오	13,518	휴온스	-1,434
삼성엘엔에스	4,015	CJ E&M	-1,178
선데이토즈	3,439	젠크스	-952
컴투스	1,243	뷰웍스	-916
차바이오텍	1,091	코오롱생명과학	-800

◆ KOSDAQ 기관/외인 당일 매매 상위 업종 및 종목

(체결기준: 백만원)

기관		외국인	
순매수	순매도	순매수	순매도
인터넷	52,472	전문기술	-6,374
계약	13,220	의료,정밀기기	-5,726
종이,목재	7,542	오락,문화	-1,191
다음카카오	52,753	휴온스	-6,590
셀트리온	11,550	CJ E&M	-5,997
삼성엘엔에스	7,729	오스템임플란트	-2,052
선데이토즈	6,029	로만손	-1,760
바이로메드	5,840	원익IPS	-1,452
리홈쿠첸	5,542	크리스탈	-1,409
메디톡스	2,771	파라다이스	-1,166
컴투스	2,469	녹십자셀	-1,151
차바이오텍	2,202	뷰웍스	-1,120
모두투어	2,095	코오롱생명과학	-1,105

외국인		외국인	
순매수	순매도	순매수	순매도
인터넷	14,344	오락,문화	-17,230
디지털컨텐츠	6,337	음식료,담배	-4,165
금융서비스	3,193	화학	-3,821
다음카카오	14,186	파라다이스	-15,593
컴투스	3,643	이지바이오	-3,399
블루콤	3,040	셀트리온	-2,902
동서	2,740	인바디	-1,893
선데이토즈	2,722	코나아이	-1,879
휴온스	2,268	바이오랜드	-1,661
뷰웍스	2,125	네오팜	-1,470
한국토지신탁	2,086	다우데이터	-1,456
ISC	1,785	휴비츠	-1,428
STS반도체	1,590	리홈쿠첸	-1,243

주: 외국인인 외국인투자등록이 되어있는 투자자

국내외 자금동향 및 대차거래

◆ 기관/외인 연속 순매수 상위 종목

(단위: 일)

KOSPI			
기	관	외	국 인
롯데칠성	28 일	태광산업	32 일
신세계	27 일	넥센타이어	24 일
세아베스틸	17 일	대한제강	17 일
아모레G	14 일	현대제철	11 일
농심	13 일	LG생활건강	10 일
대우증권	13 일	삼성전자	8 일
락앤락	13 일	모토닉	8 일
영풍	12 일	아모레퍼시픽	8 일

KOSDAQ			
기	관	외	국 인
솔브레인	12 일	동서	10 일
성광벤드	7 일	태광	8 일
다음카카오	6 일	DMS	8 일
에스에프에이	4 일	한진피앤씨	6 일
실리콘웍스	4 일	휴맥스	6 일
매일유업	3 일	동진세미켄	4 일
유진기업	3 일	에이블씨앤씨	4 일
이오테크닉스	3 일	OCI머티리얼즈	3 일

◆ 기관/외인 5일간 누적 순매수 상위 종목

(체결기준: 백만원)

KOSPI			
기	관	외	국 인
엔씨소프트	54,018	삼성전자	135,718
신세계	42,867	아모레퍼시픽	127,165
오리온	40,635	LG생활건강	100,265
KODEX 레버리지	32,206	하나금융지주	67,834
한미약품	26,034	현대차	64,230
SK C&C	23,302	NAVER	55,874
한전KPS	21,599	POSCO	48,633
현대산업	21,567	SK이노베이션	40,495

KOSDAQ			
기	관	외	국 인
다음카카오	163,456	다음카카오	29,269
삼성엘엔에스	21,193	오스템임플란트	13,887
CJ E&M	19,960	동서	10,643
리훙쿠첸	10,827	한국토지신탁	5,900
이테크건설	10,000	녹십자셀	5,815
코나아이	8,097	이테크건설	5,506
코스온	8,005	셀트리온	5,223
로엔	6,975	블루콤	4,538

◆ 기관/외인 동반 순매수 상위 업종 및 종목

(체결기준: 백만원)

종 목	KOSPI		
	기	관	외 국 인 합 계
화학	70,334	31,651	101,985
의료정밀	357	879	1,236
KODEX 레버리지	35,365	90	35,455
아모레퍼시픽	11,310	21,445	32,755
한미약품	19,988	8,064	28,052
엔씨소프트	14,702	3,511	18,214
LG생활건강	1,774	13,860	15,634
롯데케미칼	12,281	2,936	15,217
삼성테크윈	1,450	9,733	11,184
한국전력	2,200	8,119	10,320
대림산업	7,107	3,094	10,201
한화케미칼	9,273	815	10,087

종 목	KOSDAQ		
	기	관	외 국 인 합 계
인터넷	52,472	14,344	66,816
디지털컨텐츠	5,740	6,337	12,077
금융서비스	6,391	3,193	9,584
다음카카오	52,753	14,186	66,939
선데이토즈	6,029	2,722	8,751
삼성엘엔에스	7,729	585	8,315
컴투스	2,469	3,643	6,112
블루콤	654	3,040	3,695
메디톡스	2,771	544	3,315
ISC	1,012	1,785	2,797
인트론바이오	1,845	487	2,333
에스텍파마	1,901	312	2,213
씨티씨바이오	1,001	1,135	2,136

주: 기관/외인 동반 순매수 종목 가운데 기관/외인 합계 순매수 금액이 큰 순서대로

국내외 자금동향 및 대차거래

◆ 기관/외인 연속 순매도 상위 종목

(단위: 일)

기 관	K O S P I		외 국 인
	기 관	외 국 인	
디와이	43 일	한일시멘트	30 일
현대상선	32 일	신세계	27 일
태광산업	18 일	GS건설	21 일
LG디스플레이	18 일	종근당홀딩스	19 일
현대차	14 일	일진전기	18 일
대교	14 일	현대중공업	17 일
LS	11 일	아세아	16 일
하나금융지주	9 일	오리온	13 일

기 관	K O S D A Q		외 국 인
	기 관	외 국 인	
한진피앤씨	20 일	에스에프에이	13 일
STS반도체	16 일	모두투어	13 일
평화정공	9 일	한국정밀기계	12 일
원익IPS	7 일	덕산하이메탈	8 일
KH바텍	7 일	SBS콘텐츠허브	5 일
DMS	6 일	에이테크솔루션	5 일
인터플렉스	3 일	KTH	4 일
아트라스BX	2 일	솔브레인	4 일

◆ 기관/외인 5일간 누적 순매도 상위 종목

(체결기준: 백만원)

기 관	K O S P I		외 국 인
	기 관	외 국 인	
삼성전자	-89,225	SK하이닉스	-149,791
POSCO	-47,647	오리온	-80,316
LG생활건강	-45,378	신세계	-57,381
한미사이언스	-38,346	엔씨소프트	-35,369
하나금융지주	-34,823	GKL	-30,890
CJ제일제당	-33,146	현대중공업	-27,948
현대차	-30,290	CJ CGV	-25,967
현대제철	-29,090	한전KPS	-24,608

기 관	K O S D A Q		외 국 인
	기 관	외 국 인	
파라다이스	-23,595	파라다이스	-35,480
원익IPS	-13,315	코나아이	-15,301
셀트리온	-7,369	삼성엘엔에스	-10,943
팬엔터테인먼트	-5,716	CJ오쇼핑	-6,944
녹십자셀	-5,073	삼천리자전거	-4,727
위메이드	-4,466	NICE평가정보	-3,048
한국사이버결제	-4,349	로엔	-2,833
오스템임플란트	-4,317	코스온	-2,651

◆ 기관/외인 동반 순매도 상위 업종 및 종목

(체결기준: 백만원)

종 목	K O S P I		
	기 관	외 국 인	합 계
음식료품	-43,531	-13,060	-56,592
운수창고	-5,270	-4,789	-10,059
통신업	-6,068	-757	-6,825
현대차	-2,743	-14,069	-16,812
대상	-9,297	-895	-10,191
KT	-1,086	-4,759	-5,845
GKL	-781	-4,380	-5,161
KB금융	-236	-4,138	-4,374
현대위아	-1,600	-2,433	-4,033
코웨이	-982	-2,670	-3,652
대우조선해양	-430	-2,925	-3,354
현대차2우B	-2,132	-534	-2,666
삼양홀딩스	-124	-2,535	-2,659

종 목	K O S D A Q		
	기 관	외 국 인	합 계
오락,문화	-1,191	-17,230	-18,421
의료,정밀기기	-5,726	-1,755	-7,481
출판,매체복제	-692	-1,197	-1,888
파라다이스	-1,166	-15,593	-16,759
바이오랜드	-740	-1,661	-2,400
오스템임플란트	-2,052	-334	-2,386
원익IPS	-1,452	-913	-2,365
로만손	-1,760	-230	-1,989
에스엠	-558	-1,057	-1,616
삼천리자전거	-228	-1,147	-1,375
젬백스	-826	-536	-1,362
파트론	-677	-648	-1,325
에스에이엠티	-771	-543	-1,314

주: 기관/외인 동반 순매수 종목 가운데 기관/외인 합계 순매수 금액이 큰 순서대로

국내외 자금동향 및 대차거래

◆ 공매도 거래대금 상위 종목

(체결기준: 천주, 백만원)

KOSPI			
종 목	주 수	금 액	
현대모비스	80	16,909	
현대엘리베이	199	14,912	
현대중공업	131	14,550	
호텔신라	102	11,465	
현대차	70	9,579	
SK하이닉스	201	8,498	
한국항공우주	101	8,071	
LG이노텍	77	7,703	

주: 상기 표의 수치는 2거래일 전 기준임

KOSDAQ			
종 목	주 수	금 액	
다음카카오	94	11,848	
셀트리온	145	11,317	
파라다이스	281	6,648	
바이로메드	22	3,627	
오스템임플란트	47	3,124	
이오테크닉스	30	2,743	
메디투스	4	1,945	
바이넥스	55	1,059	

◆ 대차잔고 상위 종목

(체결기준: 천주, 백만원)

KOSPI			
종 목	주 수	금 액	
삼성전자	2,866	3,634,414	
현대중공업	9,195	1,020,659	
제일모직	5,225	927,409	
삼성중공업	54,056	921,661	
SK하이닉스	20,166	853,018	
아모레퍼시픽	2,020	844,447	
삼성에스디에스	2,802	727,178	
호텔신라	6,378	711,183	

주: 상기 표의 수치는 2거래일 전 기준임

KOSDAQ			
종 목	주 수	금 액	
셀트리온	20,804	1,622,714	
다음카카오	6,898	870,504	
CJ E&M	438	551,342	
위메이드	1,548	246,144	
바이로메드	1,061	189,093	
파라다이스	7,089	170,489	
컴투스	1,195	147,943	
산성엘엔에스	1,245	128,871	

◆ 대차잔고 5일간 누적 순증/감 상위 업종 및 종목

(체결기준: 천주)

KOSPI			
순 증	주 수	순 감	금 액
화학	1,790	운수창고	-6,782
섬유,의복	457	금융업	-5,417
제조업	323	전기,전자	-3,002
한화케미칼	1,510	KODEX 200	-12,487
KT	937	BNK금융지주	-4,449
현대중공업	872	현대상선	-4,324
우리금융	762	LG유플러스	-2,817
현대건설	762	하나금융지주	-2,807
삼성중공업	730	대우조선해양	-2,183
LG전자	609	SK하이닉스	-2,175
신한지주	578	메리츠종금증권	-1,966
강원랜드	548	롯데손해보험	-1,300
GKL	465	한전기술	-1,263

주: 상기 표의 수치는 2거래일 전 기준임

KOSDAQ			
순 증	주 수	순 감	금 액
오락,문화	1,513	IT부품	-944
사업지원	578	금속	-693
화학	530	비금속	-612
파라다이스	1,219	유진기업	-704
이트론	635	현진소재	-572
한국토지신탁	444	시그네텍스	-393
엠피씨	400	에스앤씨엔진그룹	-318
다음카카오	343	동국S&C	-288
씨젠	341	주성엔지니어링	-213
비아이이엠티	284	성호전자	-197
한진피앤씨	267	차이나하오란	-192
원익IPS	244	인터파크홀딩스	-187
제이콘텐츠트리	231	이녹스	-179

국내외 자금동향 및 대차거래

◆ 증시 거래 주체별 매매 동향

(단위: 십억)

구 분	연간 누계	월간 누계	5일간 누계	6/25(목)	6/26(금)	6/29(월)	7/1(화)	7/2(수)
외국인	8,310.5	13.6	-85.0	6.1	59.0	-112.5	-51.3	13.6
기관계	-8,785.2	66.4	177.8	38.6	-33.8	23.0	83.5	66.4
(투신)	-5,751.1	-23.7	182.0	44.1	41.9	36.6	83.1	-23.7
(연기금)	4,978.3	12.7	169.7	19.0	-37.8	125.1	50.8	12.7
(은행)	-567.9	0.6	-58.1	0.9	-11.6	-18.3	-29.7	0.6
(보험)	-1,122.8	-14.3	-34.7	-0.7	2.1	-24.0	2.2	-14.3
개인	208.8	-74.9	-61.9	-31.9	-16.9	92.9	-31.0	-74.9
기타	266.0	-5.1	-30.8	-12.8	-8.3	-3.4	-1.2	-5.1

주: KOSDAQ 제외

◆ 증시 자금 동향

(단위: p, 십억원, %)

구 분	2012	2013	2014	6/24(수)	6/25(목)	6/26(금)	6/29(월)	7/1(화)
KOSPI	1,997.1	2,011.3	1,915.6	2,085.5	2,085.1	2,090.3	2,060.5	2,074.2
고객예탁금	18,014.3	14,211.8	15,842.5	20,157.6	21,807.7	21,573.4	22,785.7	21,665.8
(증감액)	334.1	-3,802.5	1,630.7	-586.5	1,650.1	-234.3	1,212.3	-1,119.9
(회전율)	26.7	29.9	34.0	46.6	47.2	52.3	45.2	45.3
실질예탁금증감	-13,998.7	-10,125.7	-2,121.1	-501.8	1,494.2	-316.6	1,072.4	-1,103.3
신용잔고(KOSPI)	2,202.9	2,289.7	2,533.3	3,626.8	3,626.4	3,648.4	3,671.4	3,684.5
신용잔고(KOSDAQ)	1,709.5	1,893.1	2,537.4	3,830.2	3,857.7	3,875.2	3,902.3	3,911.9
미수금	1,241.0	929.0	1,176.0	143.7	184.9	139.3	131.9	133.2

주1: 실질예탁금 증감=고객예탁금증분+개인순매수-(신용증분+미수금 증분) / 고객 예탁금 회전율=(KOSPI, KOSDAQ 거래대금/고객예탁금)*100

주2: 상기 표의 수치는 2거래일 전까지 제공, KOSCOM

◆ 국내 수익증권 유출입 동향

(단위: 십억원)

구 분	설정 잔액	연간 누계	월간 누계	6/23(화)	6/24(수)	6/25(목)	6/26(금)	6/29(월)
전체 주식형	76,294	-4,896	700	125	125	212	217	223
(ex. ETF)		-3,059	1,276	18	84	149	124	176
국내 주식형	58,990	-5,309	749	163	85	184	181	184
(ex. ETF)		-3,472	1,325	56	43	121	88	137
해외 주식형	17,305	413	-49	-38	40	28	36	39
(ex. ETF)		413	-49	-38	40	28	36	39
주식 혼합형	9,360	-1,349	-147	-19	-7	-8	-53	8
채권 혼합형	28,642	935	801	-50	18	42	-82	89
채권형	82,399	8,669	1,275	289	240	80	-116	576
MMF	108,560	25,362	-951	-1,171	-2,885	-1,692	2,254	-362

주: 상기 표의 수치는 2거래일 전까지 제공, 금융투자협회

국내외 자금동향 및 대차거래

◆ 주요 이머징마켓 외국인 매매 동향

(단위: 백만달러)

국 가	연간 누계	월간 누계	5일간 누계	6/25(목)	6/26(금)	6/29(월)	7/1(화)	7/2(수)
한 국	7,659	12	-76	6	53	-100	-46	12
대 만	5,318	0	220	339	73	-230	39	-
인 도	6,262	0	-72	52	-	-105	-	-
인도네시아	316	0	-12	-11	10	-29	18	-
태국	-467	0	5	-11	13	0	2	-
남아공	2,947	0	498	2	-1	101	397	-
필리핀	405	0	0	-16	1	3	11	-

자료: Bloomberg, 한국투자증권

◆ 주요 금리, 환율 및 원자재 가격

(단위: %, 원, 엔, p, 달러)

구 분	2014년말	6/24(수)	6/25(목)	6/26(금)	6/29(월)	7/1(화)	7/2(수)
회사채 (AA-)	2.43	2.03	2.03	2.03	2.01	2.01	2.02
회사채 (BBB-)	8.26	7.94	7.94	7.94	7.92	7.92	7.93
국고채 (3년)	2.10	1.81	1.81	1.82	1.79	1.79	1.80
국고채 (5년)	2.28	2.08	2.10	2.10	2.07	2.07	2.09
국고채 (10년)	2.60	2.47	2.50	2.50	2.45	2.45	2.47
미 국채 (10년)	2.20	2.37	2.41	2.47	2.32	2.35	-
일 국채 (10년)	0.33	0.46	0.48	0.47	0.45	0.47	-
원/달러	1,099.30	1,108.40	1,110.00	1,116.90	1,125.30	1,125.30	1,117.50
원/엔	920.30	891.43	898.35	901.89	916.52	912.40	914.04
엔/달러	119.45	124.34	123.56	123.84	122.78	122.26	122.26
달러/유로	1.22	1.12	1.12	1.12	1.12	1.12	1.12
DDR3 1Gb (1333MHz)	1.34	1.18	1.18	1.18	1.17	1.17	-
DDR3 2Gb (1333MHz)	2.21	1.54	1.54	1.52	1.52	1.51	-
NAND Flash 16Gb (MLC)	2.18	1.72	1.72	1.72	1.72	1.71	-
CRB 지수	233.24	224.62	224.92	225.46	224.16	227.75	-
LME 지수	2,907.6	2,632.9	2,638.4	2,623.4	2,616.1	2,600.7	-
BDI	782	829	829	823	813	800	-
유가 (WTI, 달러/배럴)	53.61	60.27	59.70	59.63	58.33	59.47	-
금 (달러/온스)	1,185.50	1,173.75	1,172.65	1,170.50	1,176.00	1,171.00	-

자료: Bloomberg, KOSCOM, 한국투자증권

한 눈에 보는 증시 일정

월	화	수	목	금
22	23	24	25	26
유럽> 그리스 관련 긴급 정상회담 美> 5월 기준주택매매(백만건) (5.35, 5.26, 5.04)	中> 6월 예비 HSBC 제조업 PMI (49.6, 49.4, 49.2) 유럽> 6월 예비 마켓 제조업 PMI (52.5, 52.2, 52.2) 독일> 6월 예비 마켓 제조업 PMI (51.9, 51.2, 51.1) 美> 5월 내구재주문 (-1.8%, -1.0%, -0.5%) 5월 신규주택매매(천건) (546, 523, 517)	美> 1분기 GDP QoQ (-0.2%, -0.2%, -0.7%) 독일> IFO 기업환경지수 (107.4, 108.1, 108.5)	韓> 2015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유럽> EU 정상회담	日> 5월 실업률 (3.3%, 3.3%, 3.3%) 5월 소비자물가지수 YoY (0.5%, 0.4%, 0.6%) 美> 6월 미시간대 소비자지수 (96.1, 94.6, 94.6)
29	30	1	2	3
유럽> 그리스 구제금융 협상 재논의 (27일) 日> 5월 예비 광공업생산 MoM (-2.2%, -0.8%, 1.2%) 독일> 6월 예비 소비자물가지수 YoY (0.3%, 0.5%, 0.7%)	유럽> 그리스 구제금융 만료 5월 실업률 (11.1%, 11.1%, 11.1%) 韓> 5월 광공업생산 YoY (-2.8%, -1.9%, -2.7%) 독일> 6월 실업률 (6.4%, 6.4%, 6.4%)	美> Bullard 연준이사 연설 6월 ADP취업자변동(천명) (n/a, 210, 201) 6월 ISM 제조업지수 (n/a, 53.1, 52.8) 韓> 6월 소비자물가지수 YoY (0.7%, 0.7%, 0.5%) 6월 수출 YoY (-1.8%, -2.0%, -10.9%) 中> 6월 국가통계국 제조업 PMI (50.2, 50.4, 50.2) 6월 HSBC 제조업 PMI (49.4, 49.6, 49.6) 유럽> 6월 마켓 제조업 PMI (52.5, 52.5, 52.5)	美> 6월 비농업부본고용자수 변동(천명) (n/a, 227, 280) 6월 실업률 (n/a, 5.4%, 5.5%) 5월 제조업수주 (n/a, -0.5%, -0.4%) 日> 6월 본원통화 YoY (n/a, n/a, 35.6%)	
6	7	8	9	10
유럽> 그리스 국민투표(5일) 독일> 5월 공장수주 MoM	독일> 5월 산업생산 MoM	日> 5월 BOP 경상수지	韓> 금통위 금리 결정 日> 5월 기계수주 MoM 中> 6월 소비자물가지수 YoY	中> 6월 M2 통화공급 YoY (~15일) 6월 신규대출 (~15일)

☞ 주: 괄호안은(발표치, 블룸버그 예상치, 이전치) 순이며 예상치는 변동 가능
 발표일자는 한국시간 기준 (단, 오전 6시 이전에 발표되는 지표는 전일 기입)
 실적발표일은 Bloomberg, 기업 공시 기준으로 작성 (변동 가능, *표시는 한국시간 당일 아침)